

I . 백제의 성립과 발전

1. 백제의 기원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I. 백제의 성립과 발전

1. 백제의 기원

1) 백제 초기사를 보는 시각

백제 초기라고 할 때에는 3세기 중반의 고이왕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즉위 이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삼국의 초기 역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백제 초기사는 사료의 극심한 부족과 기사 자체의 신빙성 여부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백제 초기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전제에 대해서도 아직껏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견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견해들은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먼저 연속성 내지 계승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즉 《三國志》韓條의 馬韓小國 중의 하나인 3세기 무렵의 伯濟國과 4세기 이후의 百濟와의 관계를 연속선상에서의 계승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다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인정하는 긍정론¹⁾과 대략적인 추세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연대나 왕실 계보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절충론²⁾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은 불연속성 내지 단절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4세기 중반 이후 급

1)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一志社, 1976).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大丘史學》11, 1976).

——, 〈百濟王國의 成長〉(《大丘史學》12·13, 1977).

——,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百濟研究》17, 忠南大 百濟研究所, 1986).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震檀學報》60, 1985).

2) 金哲堧, 〈百濟建國考〉(《百濟研究》특집호, 198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작스러운 발전을 이루는 백제의 왕실은 그 출자면에서 이전의 백제국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만주지역에 존재하던 기마민족이 남하하여 세운 일종의 정복왕조라는 것이다.³⁾ 이 견해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듯 4세기 이전의 백제사는 기초 사료의 신빙성 여부로 인하여 연구자간에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마한 소국으로서의 백제국과 4세기 이후 백제와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절충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건국설화

백제의 건국설화는 내용상으로는 그리 풍부하지 못하고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갈래의 전승을 남기고 있다.

첫째, 온조를 시조로 하는 설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본문에 그 내용이 전해진다. 북부여를 떠난 朱蒙이 卒本扶餘에 정착한 후, 졸본부여왕의 둘째 딸과 혼인하여 두 아들 沸流와 溫祚를 낳았으나, 이들은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태자가 되자 그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함께 남하했다. 그 후 비류는 彌鄒忽(인천)에, 온조는 신하 10명의 輔翼을 받으며 慰禮지역(서울 강남)에 정착하고 국호를 十濟라 하였다고 한다. 곧이어 비류가 죽으면서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온조에게 귀의하였고 이때부터 국호를 백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 37, 지리 4, 백제조, 그리고 《三國遺事》 권 1, 王曆과 권 2, 紀異 2 南扶餘前百濟조에는 주몽이 東明王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일한 계통임이 분명하다. 王姓을 《삼국사기》에서는 扶餘氏로, 《삼국유사》에서는 解氏로 보는 점이 다르지만 양자 모두 주몽

3) 李基東, 〈百濟王室交代論에 대하여〉(《百濟研究》 특집호, 1982).

——, 〈百濟建國史의 二, 三의 問題〉(《百濟研究》 21, 1990).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재검토〉(《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1990).

——, 《百濟集權國家形成過程研究》(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1).

(동명왕)에서 온조로 이어지는 계보를 백제왕실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 된다.

둘째, 비류를 시조로 인정하는 설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조 細註에 인용된 기사이다. 북부여왕 解扶婁의 庶孫인 優台와 卒本人 延陀勃의 딸인 召西奴의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가 태어났으며, 우태가 죽은 후 소서노는 주몽에게 개가하였다고 한다. 주몽의 맏아들 孺留가 남쪽으로 오자 비류·온조 양인이 떠나오는 과정부터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 단 溟帶二水を 건넜다는 점, 정착한 곳이 미추홀이라는 점, 신하 10명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주몽은 비류·온조 양인의 계부에 지나지 않고 해부루-우태-비류가 백제 왕실의 뿌리가 되는 셈이다. 《삼국사기》권 32, 제사조에서는 《海東古記》에 의거하여 시조 동명설과 시조 우태설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의 우태는 비류의 친부를 일컫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비류를 시조로 하는 설에 포함된다.

셋째, 仇台를 시조로 보는 설이다. 《周書》異域 上, 百濟條에서는 백제를 마한의 속국, 부여의 별종이라면서 구태란 자가 대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隋書》단계에 와서 부여의 尉仇台와 仇台를 혼동하여⁴⁾ 帶方太守 公孫度的 딸과의 혼인 기사가 첨가되었고 동명신화와 결부되면서 구태는 동명의 후예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다.⁵⁾ 이 내용은 《北史》에서 답습되었고 《삼국사기》에 재인용되었다. 이 경우 구태는 고구려와는 관계없이 부여와 직접 연결되는 셈이다.⁶⁾

마지막으로 일본측 사서에 전하는 都慕說이다. “百濟 遠祖 都慕王은 河伯의 딸이 日精에 감응하여 태어났다”⁷⁾거나, “百濟 太祖 都慕大王은 日神이 降靈하여 부여에서 개국하였는데 후에 여러 韓을 총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⁸⁾

4) 李丙燾,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 中心勢力의 變動〉(《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1), 473쪽.

5) 俞元載,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韓國上古史學報》4, 1990), 192쪽.

6) 한편 仇台와 夫餘가 동일하게 발음될 수 있음을 전제로 仇台는 특정인물이 아니라 夫餘氏와 동일한 姓氏이며 동시에 왕을 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王民信, 〈百濟始祖 「仇台」考〉, 《百濟研究》17, 1986).

7) 《續日本紀》권 40, 延曆 8년 明年 정월.

8) 《續日本紀》권 40, 延曆 9년 7월.

라는 따위의 내용들이다. 倭地の 백제계 渡來人들 중에는 자신의 계보를 都慕에 연결시킨 예가 많다.⁹⁾ 都慕가 부여의 東明 또는 고구려의 朱蒙·鄒牟 가운데 누구에 해당하는지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도모·동명·주몽·추모는 동일하게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¹⁰⁾

이렇듯 백제의 시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데 첫째 전승은 고구려의 주몽과 직결되는데 비해, 둘째·셋째 전승은 고구려와는 관련없이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넷째 전승은 부여와 고구려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3) 건국집단의 기원과 주민구성

(1) 건국집단의 기원

건국설화의 다양함과 시조에 대한 이견은 그만큼 백제 지배집단의 계통이 복잡하다는 방증이 되겠다. 《삼국사기》의 찬자는 다양한 전승 중에서 주몽—온조로 이어지는 계보를 채택하였으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답습하였다.

하지만 우태—비류로 이어지는 전승 역시 《삼국사기》에 남겨질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백제 건국세력의 주체가 온조계만의 단일집단이 아니라 온조계와 비류계가 양립한 시기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게다가 예외없이 비류가 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는 온조계집단보다 비류계집단의 세력이 우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비류와 온조가 형제로 기록된 것은 양 집단의 출자와 계통이 동일하여서 라기보다는 초기에 연맹을 형성하였던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9)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 和朝臣·百濟朝臣·百濟公, 右京諸蕃下 菅野朝臣·百濟伎·不破連, 河內國諸蕃 河內連 등이 그러하다.

10) 백제시조를 都慕로 설정한 건국설화체계에서는 부여의 시조로서의 東明과 고구려의 시조로서의 朱蒙은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자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11) 시조 비류설이 원초적인 신앙이나 습속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조 온조설보다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國史館論叢》 13, 國史編纂委員會, 1990, 72쪽).

12) 大伽倻王 惱室朱日(伊珍阿豉)과 金官國王 惱室靑裔(首露王)를 형제로 결합시

비류를 시조로 인정하는 전승에서는 고구려나 주몽과의 관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류계집단은 일단 고구려나 주몽과는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비류라는 명칭이 압록강유역에서 주몽으로 대표되는 桂婁部 집단과 쟁투를 벌였던 松讓王의 沸流國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류집단의 출자를 비류국, 즉 消奴部집단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비류를 시조로 하는 전승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비류 시조설에서 비류는 일본인 연타발의 외손자이며 일본에서 살았다고 하므로, 계루부집단이 도착하기 전에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연맹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소노부원 일부가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남하하였고 이들이 비류를 자기 집단의 시조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와 달리 비류라는 명칭이 후대에 부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온조의 남하와 건국을 동명·주몽의 남하 및 건국과 동일한 구도로 설정한 설화체계에서는 주몽과 쟁투하다 패배한 비류국과 온조와 대립하다 패배한 미추홀집단은 그 위상과 역할이 동일한 것이다. 이 경우 동명·주몽과의 계승관계를 표방하는 위례집단이 종전부터 한강 하류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미추홀집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흡수당한 집단은 비류집단으로 가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추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류를 시조로 설정한 전승과 미추홀집단은 주몽이나 계루부집단과의 직접적인 계승관계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온조를 시조로 하는 경우에는 주몽 또는 동명왕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정치적 패배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파직되자 남으로 달아난 陝父의 예¹³⁾가 참고된다. 협부(보)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남하할 때부터 동행하였던 옛 부하 3인 중 한 명이며, 나머지 두명인 烏伊·摩離는 온조가 남하할 때 동행한 신하 10명 중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두 사람 즉 烏干·馬黎와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유리왕대에 선

킨 대가야 시조설화(《新增東國輿地勝覽》권 29, 高靈縣)도 이와 유사한 형태일 것이다(金杜珍, 〈百濟始祖 溫祚神話의 形成과 그 傳承〉, 《韓國學論叢》 13, 1991, 12~14쪽).

13) 《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유리명왕 22년.

대의 신하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내지 숙청의 와중에서 일부 집단이 남하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측 자료에서는 온조와 비류에 관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¹⁴⁾ 《魏書》에서는 백제의 계통을 부여에서 구하고 있으며¹⁵⁾ 《周書》 이후에는 그것이 구태라는 개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측의 자료가 4~5세기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帶方故地の 영유를 둘러싸고 악화되면서 치열한 외교·군사적 경쟁을 전개하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제측의 입장에서 자국 왕실의 출자를 현실적 적성국가인 고구려에서 구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이런 까닭에 근초고왕 27년(372) 東晉에 사신을 보낸 왕은 餘氏(부여씨)를 칭하였고,¹⁷⁾ 개로왕 18년(472) 北魏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직접 갈라져 나왔음을 주장하였으며,¹⁸⁾ 성왕 16년(538)에는 泗沘로 천도하고 국호를 南扶餘라고 칭하였던 것이다.¹⁹⁾

고구려와의 경쟁관계로 인해 심화된 부여 계승의식과 함께 고구려 계승의식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성왕 31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왕자 餘昌(후의 위덕왕)은 고구려 장수와 통성명하는 과정에서 성이 같음을 밝히고 있다.²⁰⁾

백제왕실이 자신의 출자를 때로는 부여에, 때로는 고구려에 연결시킨 원인은 정치·외교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계통상으로도 백제 지배계급

14) 일본의 廣井連의 조상이라는 百濟國 避流王(《新撰姓氏錄》攝津國諸蕃)을 比流王의 誤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洪思俊, 〈新撰姓氏錄의 百濟人姓氏考〉, 《馬韓·百濟文化》2, 1977, 209쪽), 그보다는 沸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찬성씨록》에서 11대 비류왕은 예외없이 比流로 표기되고 있는 반면에 沸流를 避流로 표기한 예(《海東高僧傳》1, 流通, 釋摩羅難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찬성씨록》의 避流王은 沸流에 관한 국외 유일의 자료인 셈이다.

15) 《魏書》권 100, 列傳 88, 百濟.

16) 李賢惠, 〈馬韓 伯濟國의 形成과 支配集團의 出自〉(《百濟研究》22, 1991), 24~25쪽.

17) 《晉書》권 9, 帝紀 9, 太宗簡文帝 咸安 2년 정월·6월.

18) 《魏書》권 100, 列傳 88, 百濟.

19)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13년조에 보이는 疆場의 사방 표시가 부여족 고유인 領域意識, 혹은 宇宙觀의 발로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백제 건국의 주체세력이 부여족계통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견해도 있다(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研究》10, 1987, 54~55쪽).

20)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4년 정월.

의 계통은 단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명신화는 지배집단간의 상이성을 범부여족의식으로 융해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온조왕 원년에 東明王廟가 세워진²¹⁾ 이후 다루왕 2년, 책계왕 2년, 분서왕 2년, 비류왕 9년, 아신왕 2년, 전지왕 2년에 걸쳐 동명묘 배알이 행해지고 있다.²²⁾ 일반적으로 백제 왕실은 肖古系와 古爾系가 대립하며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³⁾ 책계왕·분서왕은 고이계이며, 아신왕·전지왕은 초고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동명묘에 배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명신화의 공유와 동명묘 배알은 범부여계 지배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통합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²⁴⁾

백제 왕실이 넓은 의미에서의 부여계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확인된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왕실 묘제는 고구려계통임이 분명하다. 서울시 석촌동 일대에는 다름은 돌을 계단모양으로 쌓아 올린 基壇式 積石墓가 분포되어 있다.²⁵⁾ 외형상으로는 압록강유역의 고구려 적석묘와 동일하지만 내부 구조면에서는 순수하게 돌로만 채워 넣은 유형(1호분 남분·3호분)과 점토를 版築한 유형(1호분북분·2호분·4호분)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고구려지역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한강유역에서 발전한 지역적 변형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경에 해당되는데²⁶⁾ 출토유물면에서는 고

21) 《三國史記》 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원년 5월.

22) 이외에 구수왕 14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왕이 東明廟에 빌자 비가 왔다고 한다(《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구수왕 14년 4월).

23) 우태-비류-고이계를 優氏로, 주몽-온조-초고계를 扶餘氏로 파악하는 견해(千寬宇, 앞의 글, 134~137쪽)와 초고계를 부여씨 왕실내에서의 직계로, 고이계를 방계로 보는 견해(盧重國, 앞의 책, 78쪽)가 있다.

24) 그 원인은 동명이 북부여·고구려·백제 등 부여족 전체의 시조신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盧明鎬,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百濟史의 理解》, 學研文化社, 1990, 35~36쪽).

25) 서울大學校 博物館·考古學科, 《石村洞 積石塚 發掘報告》-서울大 考古人類學叢刊 제6책-(1975).

金元龍·裴基同, 《石村洞 3號墳(積石塚) 發掘調查報告書》(서울대 博物館, 1983). 서울特別市石村洞發掘調查團, 《石村洞古墳群發掘調查報告》(1987).

金元龍·任孝宰·林永珍, 《石村洞 1·2號墳》(서울大 博物館, 1989), 47쪽.

26) 金元龍·任孝宰·林永珍, 위의 책, 47쪽.
李賢惠, 앞의 글, 19쪽.

반면에 서울에서 기단식 적석묘의 출현은 3세기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李道學, 앞의 책, 1991, 33~36쪽 및 朴淳發, 〈漢城百濟 成立期 諸墓制

구려와 연결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3~5세기에 들어와 압록강유역의 적석묘가 갑자기 석촌동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갈라져 나와 백제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기단식 적석묘의 선행 형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남한강·북한강을 포함한 한강유역에는 2~3세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무기단식 적석묘²⁷⁾가 널리 분포되고 있으며²⁸⁾ 최근에는 임진강유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²⁹⁾ 따라서 온조집단의 남하문제는 시각을 서울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으로 넓혀서, 압록강유역 고구려 주민의 남하라는 대세 속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시점은 3세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주민구성

백제가 성장한 한강 하류지역은 마한 세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배집단을 이루게 되는 북방 유이민들이 정착하기 이전, 이 지역의 선주민세력은 대개 韓族계통으로 볼 수 있다. “後漢의 桓帝·靈帝代(2세기 후반)에 韓濊가 강성해져 郡縣(樂浪郡)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다수의 민이 韓國으로 흘러 들어갔다. 建安연간(196~219)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에 帶方郡을 설치하고 公孫模·張敞

의 編年檢討》, 《百濟考古學의 諸問題》—韓國古代學會 제5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1993).

27) 이를 적석묘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土築墓나 土墩墓와 가까운 형태로 이해하는 견해(姜仁求, 〈漢江流域 百濟古墳의 再檢討〉, 《韓國考古學報》 22, 1989), 적석묘와는 무관하게 葺石封土墳에 포함시키는 견해(李道學, 위의 책), 역시 적석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葺石墓라고 부르는 견해(崔秉鉉, 〈墓制를 통해서 본 4~5세기 韓國 古代社會〉, 《韓國古代史論叢》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4), 전형적인 고구려 무기단식 적석묘와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葺石式 積石墓로 명명하는 견해(朴淳發, 위의 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葺石이란 용어는 타당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權五榮, 〈중서부지방 백제 토광묘에 대한 시론적 검토〉, 《百濟研究》 22, 1991).

28) 權五榮,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韓國史論》 15, 서울大 國史學科, 1986), 34~54쪽.

29) 漣川郡 仙谷里·鶴谷里·三串里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중 삼곶리의 적석묘가 발굴조사되었다.

金聖範,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文化財》 25, 文化財管理局, 1992), 238쪽.

尹根一·金性泰,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등을 보내어 흩어진 인민들을 끌어모으고 병사를 일으켜 한예를 토벌하였다”는 기사³⁰⁾에서의 한예는 낙랑군의 남쪽과 동쪽에 있던 세력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 守墓者로서 차정된 한예 220家は 대개 한강유역의 백제주민으로 이해되고 있다.³¹⁾

한강유역에 거주하던 주민집단의 대다수는 韓人일 것이며 여기에 동해안 방면에서 이주해온 濊人이 일부 섞이게 되었을 것이다. 南沃沮 仇頗解 등 20여 개의 이주³²⁾가 그 예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와 신라를 침략하는 靺鞨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해안지역의 예인일 것이며³³⁾ 백제와의 잦은 접촉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한강유역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한예들은 주로 백제의 피지배층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木棺墓는 이들, 특히 한인들의 묘제로서 고구려계 유이민들의 묘제인 적석묘와 뚜렷이 구분된다. 목관묘는 서울지역에서만 葺石封土墳³⁴⁾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는 고구려계 유이민들이 전래한 적석묘의 영향으로 생각되며³⁵⁾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 옹관묘나 목곽묘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지배층을 구성하였던 세력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남하하여 한강유역 각지에 정착하였던 것 같다. 온조왕대에 右輔로 임명된 北部人 解婁는 본래 부여인이었다고 하므로³⁶⁾ 백제 후기까지 중요 귀족세력이었던 해씨집단은 부여계통임이 분명하다. 해씨와 함께 북부에 속하였던 眞氏

30)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31) 盧重國, 앞의 책, 36쪽.

32)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43년.

33) 박진욱, 〈백제, 신라에 이웃하였던 말갈에 대하여〉(《력사과학》 1978-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7쪽.

俞元載, 〈三國史記 僞靺鞨考〉(《史學研究》 29, 1979).

34) 이를 (方形)土築墓라고 부르는 견해(姜仁求, 《三國時代墳丘墓研究》,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1984)와 封土土壙墓라고 부르는 견해(朴淳發, 앞의 글)가 있다.

35) 봉토 위에도 돌을 덮는 착상이라든지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地上化하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林永珍, 〈石村洞一帶 積石塚系와 土壙墓系 墓制의 性格〉(《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 考古學篇 -, 1987), 486쪽.

李賢惠, 앞의 글, 18쪽.

36)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41년.

세력이나 말갈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東部人 屹于, 高木城 昆優 등도 대개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된다. 춘천에 貊國이 존재하였다는 설³⁷⁾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백제의 주민구성에 신라·고려(고구려)·왜·중국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³⁸⁾은 4세기 전반 중국의 군현이 축출된 이후 활발해진 삼국간, 나아가서는 중국·왜와의 긴밀한 교섭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개로왕대와 동성왕대에 중국에 보낸 국서에 등장하는 張茂,³⁹⁾ 高達·楊茂·王茂·張塞·陳明 등과⁴⁰⁾ 高興,⁴¹⁾ 王仁⁴²⁾ 등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되는 와중에서 백제에 흡수된 중국계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⁴³⁾

〈權五榮〉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1) 백제국과 목지국

마한의 여러 「國」 중의 하나였던 伯濟國은 한강 하류지역, 현재의 서울시 강남구·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삼았다. 백제국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은 《삼국지》에 의하면 3세기 중반 무렵에 해당된다. 서울시 송파구의 가락동과 석촌동 일원에 분포하는 목관묘계통의 유적이 당시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무덤들이 북방계인 백제국 최고 지배세력의 무

37) 《三國史記》 권 35, 雜志 4, 地理 2, 朔州.

38) 《北史》 권 94, 列傳 82, 百濟.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

39)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40) 《南齊書》 권 58, 列傳 39, 百濟.

41)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말미.

42) 《日本書紀》 권 10, 應神天皇 15·16년.

《古事記》中, 應神天皇.

43) 이전에도 낙랑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백제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잦았을 것이다. 後漢 桓帝·靈帝代の “民多流入韓國”(《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이 가장 현저한 예이다. 양 세력간의 전투에서도 民에 대한 약탈이 빈번하였을 것이다(《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13년).

덤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강동구의 몽촌토성은 백제국의 중심세력이 거주하였던 생활 유적으로서 백제국의 國邑에 해당된다. 축성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성내에서 발견된 西晉의 錢文陶器片¹⁾은 이 성의 사용시기가 3세기대로 소급함을 보여준다. 아마도 최초의 모습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盛土築城한 토성이었다기보다는 자연구릉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위에 목책을 두른 형태였을 것이다.²⁾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대에 이미 영토를 북으로는 溟河, 남으로는 熊川, 서로는 大海, 동으로는 走壤으로까지 뻗쳐 마한과의 경계를 정하고³⁾ 곧이어 마한을 공격하여 병탄한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의 마한은 마한 전체라기보다는 目支國을 중심으로 결집된 일부 세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국사기》온조왕조 기사에 반영된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는 한강 하류지역에서 성장한 백제국 중심의 연맹과 기존의 선주민사회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온 목지국 중심의 연맹간의 관계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패하는 현재의 임진강, 대해는 서해, 주양은 춘천에 해당되며, 웅천은 安城川으로 보는 견해⁵⁾와 錦江으로 보는 견해⁶⁾로 대립되어 있다. 《삼국사기》온조왕조의 영역관은 당대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사실이 소급, 부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삼국지》의 내용을 볼 때 3세기 중반까지도 의연히 목지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백제국은 아직 전체 마한을 대표하는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온조왕조의 영역기사와 마한(목지국)의 멸망기사는 3세기 중반 이후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1985), 140쪽.

2) 外城의 정상부, 本城의 서북벽, 동벽의 바깥쪽에서 목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夢村土城發掘調査團, 《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1984), 91~93·242~245쪽.

—————, 앞의 책(1985), 53~54쪽.

3)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13년.

4)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26·27년.

5) 李丙燾,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1), 248쪽.

6) 李道學, 《百濟集權國家形成過程研究》(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1), 170~171쪽.

최근에 天安 淸堂洞,⁷⁾ 淸州 松節洞,⁸⁾ 公州 下鳳里⁹⁾ 등지에서는 3세기대의 목관묘와 목곽묘들이 발견되었는데 묘광의 주위에 周溝를 돌린 점이 큰 특징이며 입지, 유구의 구조, 출토유물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목관묘들은 서울지역의 같은 시기의 목관묘들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백제국 중심의 세력권과 목지국 중심의 세력권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유역에서는 목관묘와 함께 적석묘가 사용되고, 반면에 충청 이남에서는 서울의 목관묘와는 다른 특징적인 목관묘들이 발견되는 현상은 백제국 중심의 연맹과 목지국 중심의 연맹간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셈이므로, 결국 목지국의 위치는 천안-청주를 잇는 선의 이남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마한을 멸망시킨 후, 즉시 大豆山城을 쌓았다고 한다.¹¹⁾ 이 성의 기능은 목지국의 저항을 제압하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목지국의 국읍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온조왕 36년(18)에는 湯井城을 쌓고 大豆城의 민호를 나누어 거주하게 하였다고 하므로, 대두성은 탕정성(현재의 溫陽)에 근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¹²⁾ 따라서 목지국의 위치는 온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특히 천안 일대를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¹³⁾

7) 徐五善·權五榮, 〈천안 청당동유적 발굴조사보고〉(《休岩里》-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2책-, 1990).

徐五善·權五榮·咸舜燮, 〈천안 청당동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松菊里》IV-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3책-, 1991).

徐五善·咸舜燮, 〈천안 청당동 제3차 발굴조사보고서〉(《固城貝塚》-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4책-, 1992).

韓永熙·咸舜燮, 〈천안 청당동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淸堂洞》-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5책-, 1993).

8) 車勇杰·趙詳紀·禹鍾允·吳允淑, 〈淸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 博物館, 1994).

9) 徐五善, 〈公州 下鳳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3).

10) 權五榮, 〈중서부지방 백제 토광묘에 대한 시론적 검토〉(《百濟研究》22, 忠南大 百濟研究所, 1991).

11)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27년.

12) 최근에 大豆山城의 위치를 牙山 靈仁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발표되었다(俞元載, 〈百濟 湯井城研究〉, 《百濟論叢》3,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84쪽).

13) 天安郡 稷山일대는 예전부터 목지국의 중심지로 비정되어 왔으며(李丙燾, 앞의 글), 역시 天安의 花城里유적은 인근의 淸州市 新鳳洞유적과 함께 이 일대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였던 마한연맹체는 백제국의 성장, 목지국의 쇠락과 함께 분열·퇴축되어 갔을 것이며 차츰 영산강유역의 세력이 마한 잔여세력을 대표하는 중심체로 떠올랐던 것 같다. 5세기대를 중심 연대로 하는 羅州·靈巖 등지의 대형 옹관묘들이 그 증거이다.

2) 백제국 성장의 배경

북방 유이민들이 주체가 된 백제국 중심의 연맹이 목지국 중심의 연맹을 압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선진적인 철기문화를 들 수 있다. 한강유역의 春川 中島,¹⁴⁾ 中原 荷川里,¹⁵⁾ 提川 陽坪里¹⁶⁾·桃花里¹⁷⁾ 등의 유적에서는 鑄造鐵斧 이외에 鍛造鐵器, 특히 농공구와 무기들이 상당량 출토되고 있다. 반면에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까지 금강유역 철기문화의 발달은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기원전 3세기 단계만 하더라도 금강유역이 한반도의 중부 이남에서는 철기문화의 보급이 가장 이른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鉾·鏃·斧·刀 등의 발달된 철제 무기류는 기원 이후 중부지방의 각지에서 성장해 오던 지역집단간, 소국간의 분쟁에서 우열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도끼·삽날·괘이·낫·손칼 등의 철제 농공구는 황무지 개간을 비롯한 起耕·제초·수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석제나 목제 농공구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였을 것이다.¹⁸⁾

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 14) 國立中央博物館, 《中島 I —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제12책 —》(1980).
國立中央博物館, 《中島 II —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제14책 —》(1982).
朴漢高·崔福奎·盧熾眞·崔恩珠, 《中島發掘調查報告書》(江原大 博物館, 1982).
- 15) 尹容鎮, 〈中原 荷川里 F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1983·1984年度—〉(《忠州댁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II —》, 忠北大 博物館, 1984).
- 16) 裴基同, 〈堤原 陽坪里 A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忠州댁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I —》, 忠北大 博物館, 1984).
- 17) 崔夢龍·李熙濬·朴洋震, 〈堤原 桃花里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忠州댁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I —》, 忠北大 博物館, 1984).
- 18)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韓國上古史學報》8, 韓國上古史學會, 1991).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농업생산력의 문제이다. 최근에 발굴 조사된 河南 漢沙里유적에서는 늦어도 4세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밭의 흔적이 발견되었다.¹⁹⁾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가뭄·홍수·蝗害 등의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보리·콩 등의 곡물피해, 나아가서는 가뭄·기근 등의 사건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당시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왕에 의한 勸農 조치가 자주 내려지고 있으며 때로는 구체적으로 논의 설치, 홍수 피해를 입은 밭의 보수, 제방 보수, 흉년으로 인한 釀酒의 금지령 등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논농사, 또는 쌀의 재배는 초기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다루왕 6년(33)에 가서야 처음으로 논을 만들었다는 점, 미사리유적의 경우도 논이 아닌 밭이라는 점, 하천리의 주거지 내부에서 보리알을 포함한 밭곡물이 토기 속에 보관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서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²⁰⁾

백제에서 쌀농사의 시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되기 시작한 것은 고이왕대에 南澤에서 논이 개척²¹⁾되면서 부터이다. 이 때는 3세기 중반경으로서 백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의 남쪽 경계가 확장되면서 경기도 남부의 평야지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철기의 보급은 금강유역이 한 걸음 앞서 나갔으나 이 지역의 철기가 주조 철부와 鐵鑿의 단조로운 조합상을 보이는 점²²⁾에서 유추되듯이 사회적 생산력의 급속한 증진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한강유역에서는 한걸음 늦게 철기문화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발달된 단조 기술을 기반으로 농공구류가 풍부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생산도구를 이

19) 崔鍾澤, 〈漢沙里出土 밭의 構造와 年代에 대해서〉(《서울大學校 博物館年報》 5, 서울대 박물관, 1993).

20) 청동기시대에 이미 한강유역의 驪州 欣岩里遺蹟(《欣岩里住居址》4-서울대 고고인류학공간 제8책-, 1978), 금강유역의 扶餘 松菊里遺蹟(《松菊里》I-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제11책-, 1979)에서 쌀재배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초기에 쌀농사가 본격화하지 못한 이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백제의 지배집단이 북방계란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21)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9년 2월.

22) 池健吉, 〈長水 南陽里出土 靑銅器·鐵器 一括遺物〉(《考古學誌》2, 1990).

李健茂, 〈扶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2, 1990).

——, 〈唐津 素素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3, 1991).

용한 농업의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였을 것이다.

漢城期 백제의 鐵產地는 현재 분명히 드러난 것은 없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남한강 상류인 寧越·提川·忠州 등지와²³⁾ 황해도의 瑞興·平山·鳳山·海州·牛峰 등지의 철산이²⁴⁾ 중요시된다.

다음으로는 한강 하류지역의 입지적인 조건을 꼽을 수 있다. 고대의 항해로가 바다를 직접 횡단하지 못하고 연안을 따라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한강하구는 중국-낙랑·대방-가야-왜를 잇는 해상교통로상의 중요지점이었다. 弁辰 狗耶國의 성장 배경으로 풍부한 철산지와 함께 낙동강유역의 여러 정치체에 대한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는 견해²⁵⁾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제국의 경우도, 인천지역의 미추홀집단을 병합하면서 한강하구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내륙지방, 나아가서는 낙랑군과 대방군,晋과의 교역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²⁶⁾

한반도 중부와 서부지방에서는 3~5세기 무렵의 서진과 동진의 물품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3세기 후반의 서진대 물품들은 서울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錢文陶器,²⁷⁾ 洪城 神衿城 출토의 전문도기,²⁸⁾ 益山 胎峰寺址 출토의 西晋 鏡²⁹⁾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것들은 마한 소국들이 독자적인 교역을 통하여 구입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4세기 이후의 동진제 물품은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동토성, 석촌동고분군에서 자주 발견되며 原州 法泉里,³⁰⁾ 天安 花城里³¹⁾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백제 중앙에 의하여 수

23) 李道學, 앞의 책, 78쪽.

24) 金哲堧, 〈百濟社會와 그 文化〉(《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1973), 79쪽.

25) 李賢惠,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韓國古代史研究》1, 韓國古代史研究會, 1988).

26) 이와 함께 인천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소금의 산지를 장악하게 된 백제국이 소금의 독점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해서 한강유역의 각 세력들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李道學, 앞의 책 68~82쪽).

27) 夢村土城發掘調査團, 앞의 책(1985), 140쪽.

28) 成正鏞, 〈漢城百濟期 中西部地域 百濟土器의 樣相과 그 性格〉(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93), 64쪽.

29) 洪思俊, 〈全北 益山出土 六朝鏡〉(《考古美術》1-1, 韓國美術史學會, 1960).

柳佑相, 〈胎峰寺出土 晋鏡에 對한 小考〉(《湖南文化研究》4, 1966).

30) 金元龍,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와 出土遺物〉(《考古美術》120, 韓國美術史學會, 1973).

31) 三上次男, 〈漢江流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朝鮮學報》81, 1976).

입된 후 분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³²⁾

대외교섭 창구의 일원화로 인하여 백제국은 중서부지방의 여러 정치체 안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며, 역으로 이러한 우세는 백제국의 위치를 한층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³³⁾

3) 백제국의 성장

백제국 성장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내부적으로는 백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집단들, 그리고 주로 유이민집단이 중심이 되었을 경기도 북부, 강원도 서부의 여러 정치체들³⁴⁾의 원심분리적인 운동력을 제거하면서 지배세력들을 관료체제 내부로 흡인하는 방향이었다. 외부적으로는 북방의 군현세력, 동북방의 靺鞨(滅)과 항쟁하고, 남쪽으로는 기존의 목지국 중심의 마한연맹체를 잠식해가면서 전체 마한사회의 패권을 장악하는 방향이었다.³⁵⁾

2세기 후반 이후 韓濊가 강성해져 중부 이남지역의 정치체들에 대한 낙랑군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당시 요동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누리고 있던 公孫康에 의해 3세기 초에 설치된 대방군은 이러한 추세를 저지하게 위한 방편이었다. 이 시도는 부분적인 효과를 거두어 유민을 모으고 한예를 공격하면서 주민이 점차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왜와 한은 대방군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³⁶⁾ 대방군의 설치 2세기 이후 삼한사회의 정치적 성장이 현저하여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 주역은 백제국을 중심으로 한 마한 북부의 여러 정치체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국을 중심으로 마한의 북부 세력들이 결집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³⁷⁾ 온조왕대에는 말갈·낙랑·마한과

小田富士雄, 〈越州靺鞨靺靺 作出한 忠南의 百濟土器〉(《百濟研究》특집호, 1982).

32) 權五榮,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韓國史論》18, 서울대 國史學科, 1988).

33) 이러한 양상은 삼국 전기에 공통적이었을 것이다(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 《韓國史論》2, 1975, 10~20쪽).

34) 이러한 세력들은 《三國史記》百濟本紀에 北部와 東部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35) 盧泰敦, 〈三國의 成立과 發展〉(《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1977), 171~172쪽.

36)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37) 그 연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흐름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전투할 때, 항상 온조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온조의 뒤를 이은 다루왕 3년(30)에는 동부 屹于가, 4년에는 고목성 昆優가 각각 말갈과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간에는 온조왕 31년(13)·32년에 남북·동서부의 설치, 41년에 右輔였던 族父 乙音의 후임으로 북부인 解婁의 임명 등이 있다. 다루왕대에는 우보의 직위가 북부인 해루에서 동부인 흘우로 옮겨졌고 동왕 10년에는 左輔를 신설하여 전임 우보였던 흘우를 좌보로 이동시키고 새로이 북부인 眞會를 우보로 임명하고 있다. 고이왕 7년(240)에는 역시 북부인으로 여겨지는 眞忠을 左將에 임명하여 内外 兵馬使를 통괄시키고 14년에는 진충을 우보로, 眞勿을 좌장에 임명하고 있다.³⁸⁾ 이렇듯 중앙의 정치무대에 참여하는 집단의 폭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은 백제국 중심의 연맹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계조직의 성립이 지방세력의 흡수 및 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魏의 景初연간(237~239)에 접어들며 요동의 공손씨정권은 붕괴되고 낙랑군과 대방군은 위의 직접 관할로 들어갔다.³⁹⁾ 새로이 파견된 대방태수 劉昕과 낙랑태수 鮮于嗣는 각 소국간의 통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국의 우두머리인 臣智들에게 邑君·邑長 등의 印綬를 분배하고, 이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衣幘을 하사하였다.⁴⁰⁾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성장해 나가던 세력집단들과 낙랑·대방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마침내 3세기 중반 魏의 正始연간에는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발단은 幽州刺史 毋丘儉의 고구려 침공이었다. 고구려 동천왕 18년(244; 고이왕 11) 步騎 1만명으로 시작된 관구검의 침공은 고구려의 패주로 본대는 일단 회군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에는 玄菟太守 王頎가 파견되어, 동천왕을 추적하여 함경도의 동옥저를 거쳐 두만강 너머 북옥조지역에까지 이르렀다.⁴¹⁾ 그리고 이 해에는 낙랑태수 劉茂와 대방태수 弓遵이 영동지

38) 이 가운데 해씨와 진씨는 이른바 「大姓八族」으로서 백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漢城期에는 王妃族으로 기능하였다(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569~579쪽).

39)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序.

40)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41) 《三國志》 권 28, 魏書 28, 毋丘儉傳 및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東沃沮.

42)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滅.

방의 濊를 침공함으로써⁴²⁾ 이 전쟁은 현도·낙랑·대방을 주축으로 한 유주와 고구려의 대결이 되고 동시에 동옥저·북옥저·동예마저 전화에 휩쓸려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파급은 곧 남쪽에도 미치게 되었다. 백제의 고이왕은 유주자사, 낙랑·대방태수가 고구려를 침공하자 그 틈에 좌장 진충을 보내어 낙랑의 변방 주민을 습격하여 잡아왔다고 한다.⁴³⁾ 이 사건은 《삼국지》한조에서는 약간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辰韓八國」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통할시키는 분리책에 대항하여 어떤 신지가 韓의 분노를 격발시켜 대방군을 선공하면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⁴⁾ 《삼국사기》와 《삼국지》에 나타난 사건은 동일사건임이 분명하다. 《삼국지》에 나타난 전쟁의 원인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면서 배경을 이룬다면, 《삼국사기》의 내용은 그 발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전쟁을 주도한 《삼국지》에 보이는 한의 신지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삼국사기》의 기사와 결부시켜 이를 고이왕으로 보는 견해,⁴⁵⁾ 목지국의 신지로 보는 견해,⁴⁶⁾ 그리고 제3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⁴⁷⁾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명쾌히 해명하기 곤란한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첫번째의 견해를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낙랑·대방군과의 전투는 마한의 여러 정치체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세력들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246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⁴⁸⁾ 이 해는 《삼국사기》에서 고이왕이 낙랑을

43)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13년.

44) 弓遵은 正始 6년까지도 대방태수로 재직하였음이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條에서 확인되며, 이 해의 고구려 공격을 담당하였던 현도태수 王頎(《三國志》 권 28, 魏書 28, 毋丘儉傳)가 8년에는 대방태수로 등장하기(《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人) 때문에 그 사이, 즉 245~247년 사이에 사망한 셈이다. 따라서 전쟁은 이 기간에 전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5) 千寬宇, 〈『三國志』韓傳의 再檢討〉(《震檀學報》 41, 1976), 32~33쪽.

46) 이 전쟁은 目支國 중심의 마한의 패배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소국들의 이탈로 목지국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백제가 목지국을 제압하고 마한 전체의 영도권을 차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논리이다(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1987, 36~38쪽).

47) 《三國志》百納宋本에는 “臣智激韓忿”이란 귀절이 “臣憤沾韓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臣憤(漬沾)이 노하여”로 해석하고 대방군을 공격한 주체를 백제국이 아닌 馬韓諸國 중의 하나인 臣漬國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518쪽의 後註 65).

습격한 때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2郡이 드디어 韓을 멸망시켰다”라는 기록⁴⁹⁾에서부터 “낙랑태수가 노하니 왕(고이왕)이 침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빼앗았던 民口를 돌려주었다”⁵⁰⁾ “韓那奚 등 수십국이 각기 種落을 이끌고 항복하였다”⁵¹⁾ 등으로 분분하다.⁵²⁾ 아마도 궁준의 사망 이후 두 세력간의 대규모 충돌은 더 이상 없게 되었고 韓(백제국)측에서 빼앗았던 주민을 송환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약 30년 동안 두 세력간에는 별다른 충돌이나 교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백제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고이왕 27년(260)에 6佐平의 설치와 직무분장, 좌평 이하 克虜까지의 16 관등의 설치, 紫·緋·靑으로 3분된 관인들의 복색규정, 奈率(6품) 이상 銀花로 장식한 冠의 착용,⁵³⁾ 內臣佐平 임명 등이 이루어지고 다음해에는 왕의 冠制와 服式제정,⁵⁴⁾ 南堂에서의 聽事, 내신좌평 이외에 나머지 다섯 좌평의 임명 등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해에는 관인으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에 대한

48) 池內宏, 〈公孫氏の帶方郡設置と曹魏の樂浪・帶方二郡〉(《滿鮮史研究》上, 제1책, 吉川弘文館, 1951), 247쪽.

49)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50)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13년.

51) 《三國志》권 4, 魏書 4, 齊王芳紀 正始 7년.

52) 《三國志》齊王芳紀에서는 正始 7년에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 예맥토벌, 한나해 등의 항복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삼국사기》고구려본기와 《資治通鑑》권 75, 魏紀 7, 邵陵厲公에서도 이 연대를 좇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국지》관구검전과 고구려·예·한·왜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공은 정시 5년부터 시작하여 7년까지 지속되었고 齊王芳紀에서는 이 전 역이 완전히 마무리된 정시 7년조에서 일련의 사건을 간략히 압축,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3) 銀製 花形冠飾은 扶餘 下黃里(洪思俊, 〈扶餘 下黃里 百濟古墳 出土의 遺物〉, 《然齋考古論集》, 1967), 論山 六谷里(安承周·李南奭, 《論山 六谷里 百濟古墳 發掘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南原 尺門里(洪思俊,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考古美術》9-1, 韓國美術史學會, 1968), 羅州 興德里(有光教一, 〈羅州潘南面古墳의發掘調査〉, 《昭和十三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40) 등지의 석실분에서 그 실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무덤에 묻힌 피장자는 奈率 이상의 관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54) 왕의 冠인 금으로 장식한 烏羅冠은 公州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金製 冠飾 1쌍을 검은 비단 모자에 결합시킨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三和出版社, 1973, 18쪽).

처벌령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문물의 정비는 고이왕대를 백제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시기로 설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⁵⁵⁾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타난 6좌평의 구성과 직무분장, 왕의 복식과 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舊唐書》와, 16관등의 명칭과 서열은 《周書》·《北史》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⁵⁶⁾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은 중국측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국사기》의 기사처럼 고이왕대에 정연한 체제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泗泚期 이후의 사실이 부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⁵⁷⁾

하지만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난 바로는 고이왕 27년과 28년에 최초의 좌평 임명이 이루어진 이후, 동성왕대까지는 內頭佐平을 제외한 5좌평의 관등을 지닌 인물들이 골고루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오히려 무령왕대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직능을 갖지 않은 형태의 좌평, 상·중·하좌평, 대좌평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6좌평제도는 漢城 및 熊津期에 이미 정비된 형태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⁵⁸⁾ 達率 이하의 관등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冠制의 경우는 현재까지 출토된 冠飾을 검토할 때 고이왕대의 규정에 들어맞는 관식이 사용되는 것은 6세기 초반 이후이기 때문에, 관제 역시 6세기

55) 이런 까닭에 《周書》에 전하는 백제 시조인 仇台를 古爾와 동일시하며 고이왕 27~28년 경을 백제의 진정한 건국 연대로 보기도 한다(李丙燾,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 勢力的 變動〉, 앞의 책, 474~477쪽).

56) 약간씩의 차이는 존재한다. 예컨대 5품관의 경우 《삼국사기》와 《주서》에는 杆率로, 《北史》·《隋書》·《翰苑》는 杆率로 표기되어 있다. 官人의 帶色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국측 사서에서 紫·阜·赤·靑·黃·白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지만 《삼국사기》 본기에는 해당내용이 없고 권 32, 色服에서 중국측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관인의 服色에 대해 중국측 자료에서는 《구당서》의 緋色, 《신당서》의 絳色 이외에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나 《삼국사기》 본기에는 紫·緋·靑의 3단계의 구분이 있다.

57)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的 變遷〉(《韓國史論》 4, 서울대 國史學科, 1978), 80~83쪽.

58) 한편 6좌평제도 자체가 《周官》에 입각하였을 것으로 보면서 문주왕 원년(475) 웅진 천도를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에 채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李基東,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 69, 1990), 11~13쪽.
——,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 併合〉(《百濟論叢》 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9~10쪽.

이후에야 실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⁵⁹⁾

고이왕대에 율령이 반포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릇 관인으로서 受財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3배로 변상케 하고 종신 禁錮에 처한다”라는 《삼국사기》 고이왕 29년의 기사를 인정하고 이 때에 율령의 반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⁶⁰⁾과 이를 부정하고 근초고왕 내지 근구수왕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입장⁶¹⁾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 율령의 반포가 불교의 전래 및 공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⁶²⁾을 고려할 때 백제도 역시 불교 전래와 공인의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4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시키기는 곤란할 것 같다.

이상의 모든 사건들이 과연 고이왕대에 한꺼번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 일련의 제도와 문물에 관한 정비의 내용들을 고이왕 27~29년의 사건으로 일괄 기재하고 있는 점은 이 시기가 앞선 시기와 구분되는 하나의 획기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3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새로이 통일왕조 西晉이 등장하게 되며 서진과 「東夷」와의 교섭이 급증한다.⁶³⁾ 《진서》에서의 동이는 夫餘國・馬

59) 李南夷, 〈百濟 冠制와 冠飾〉(《百濟文化》20, 公州大 百濟文化研究所, 1990), 15~19쪽..

60) 李鍾旭, 〈百濟의 佐平〉(《震檀學報》45, 1978), 30~32쪽.

61)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266~267쪽.

62) 불교와 율령은 종교와 법제라는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고대국가 성장과정에서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일원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3) 《晉書》武帝紀와 馬韓條에 나타난 양자의 교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武帝紀〉	〈馬韓條〉
咸寧 2년(276)	2 월	東夷八國歸化	
	7 월	東夷十七國內附	
3년(277)	是歲	東夷三國…各帥種人部落內附	復來
4년(278)	3 월	東夷六國來獻	又請內附
	是歲	東夷九國內附	
太康 원년(280)	6 월	東夷十國歸化	其主遣使入貢方物
	7 월	東夷二十國朝獻	
2년(281)	3 월	東夷五國朝獻	其主遣使入貢方物
	6 월	東夷五國內附	
3년(282)	9 월	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7년(286)	8 월	東夷十一國內附	又頻至
	是歲	馬韓等十一國遣使來獻	
8년(287)	8 월	東夷二國內附	又頻至

韓·辰韓·肅慎氏·倭人·裨離等十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속신은 함녕 5년(279)에 桔矢石弩를 바친 것이 서진과의 교섭으로는 유일하고,⁶⁴⁾ 倭人은 태시(265~274) 초에 사신을 보낸 이후 함녕(275~279), 태강(280~289), 태희(290) 연간에는 교섭이 보이지 않으며 裨離等十國은 태시 3년(267)과 태희 원년(290), 합쳐서 2회의 교섭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武帝紀의 동이는 대개의 경우 부여·마한·진한으로 압축된다.⁶⁵⁾

태강 3년(282)의 “東夷29國歸化”는 《진서》張華列傳의 “東夷馬韓新彌諸國에서 … 대대로 귀부하지 않았던 20여 국이 함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⁶⁶⁾ 따라서 무제기의 동이 29국은 馬韓·新彌諸國을 가리키는 셈이다.⁶⁷⁾ 태강 7년 8월의 동이 11국 來附도 ‘是歲條’에서는 마한 등 11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무제기와 마한조 양자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무제기에서만 확인되는 동이 관계기사도 대개의 경우 마한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80·281년의 馬韓主는 전체 마한세력권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伯濟國王, 따라서 고이왕일 가능성이 크다. 282년에 이루어진 ‘東夷馬韓新彌諸國의 遣使朝獻’에서 「마한」은 백제국 중심의 연맹을, 「신미」는 그 나머지, 즉 마한 잔여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⁸⁾ 백제국이 기존의 목지국을

9년(288) 9 월	東夷七國詣校尉內附	
10년(289) 5 월	東夷十一國內附	又頻至
太熙 원년(290) 2 월	東夷七國朝貢	詣東夷校尉何龕上獻
永平 원년(291) 是歲	東夷十七國…詣校尉內附	

64) 《晉書》권 97, 東夷傳, 肅慎氏條에는 武帝 元康 초에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강은 惠帝代에 속하므로 이는 착오이다. 무제기에 의할 때 함녕 5년에 교섭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65) 부여는 서진과의 교섭이 東夷諸國 중에서 제일 잦았을 것이며, 특히 태강 6년 慕容鮮卑의 침공으로 망국의 위기에 처하면서 서진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었을 것이다. 진한의 경우는 《晉書》권 97, 東夷傳 辰韓條에 의하면, 태강 원년, 2년, 7년 등 모두 3회에 걸쳐 遣使·朝貢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진서》동이전에서 는 누락되어 있으나 고구려도 당연히 이 시기에 서진과 교섭하였을 것이다.

66) 張華가 ‘持節 都督幽州諸軍事 領護烏桓校尉 安北將軍’이 된 것은 태강 3년(282)이다(《晉書》권 3, 武帝, 太康 3년 정월 및 권 36, 張華列傳).

67) 이 구절은 흔히 “동이에 속하는 마한의 新彌諸國이”로 해석하여 新彌國 등을 마한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지만, 해석상 마한과 新彌는 대등한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이에 속하는 마한과 新彌의 諸國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68) 태강 연간의 마한이란 표현을 구분하여, 277~281년까지의 마한은 백제국 중

대체하여 전체 마한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마한을 칭하고 그 왕은 「馬韓主」로 불리웠을 것이므로, 백제국 세력권 밖의 마한 제국들은 다른 명칭으로 불리웠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미제국이 아닌가 한다. 신미국의 위치는 대체로 전라남도 일대에 해당된다.⁶⁹⁾

당시의 교섭은 歸化・內附・(遣使)來獻・朝獻・朝貢・遣使入貢方物・上獻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東夷校尉⁷⁰⁾를 거쳐서 입조하거나 東夷校尉府까지 가는 선에 머물렀을 것으로 이해된다.

서진과 마한과의 교섭이 있었던 시기는 백제로서는 고이왕 43년(276)에서 책계왕 6년(291)까지의 시기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와 2郡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던 듯, 군사적 충돌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책계왕은 고이왕이 재위할 때에 ‘帶方王女寶菓’와 혼인하였으며, 그 원년(286) 고구려의 대방 침공에 임하여 대방이 구원을 청하자 ‘舅甥之國’이라면서 군사를 내어 구원하기까지 하였다.⁷¹⁾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마한 등의 동이세력들이 서진과 긴밀한 교섭을 가졌던 것과 잘 부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밀월관계는 곧 깨어지게 된다. 서진의 무제가 죽고 혜제가 즉위하면서 전개된 8王의 亂(291~306), 5胡의 발흥 등으로 서진은 전반적인 붕괴기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동이의 입조도 영평 원년(291)을 마지막으로 끊기게 된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와 2군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양상이 나타나 있다. 책계왕 13년(298)에 漢(2郡)과 貊人의 침공을 방어하던 책계왕이

심의 마한, 282년의 마한은 신미국 등 20여 국이라고 보는 견해(盧重國, 〈목지국에 대한 일고찰〉, 《백제논총》 2, 1990, 88쪽)도 있다. 이 경우에도 282년 단계에서 마한연맹체가 백제국 중심의 세력권과 신미국 중심의 세력권으로 양분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본고와 동일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

69) 《日本書紀》神功皇后 49년조의 ‘南蠻忱彌多禮’의 忱彌多禮를 일본어 혼독인 ‘도무다레(トムタレ)’로 읽지 않고 심미다레로 읽어 이를 新彌國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忱彌多禮의 위치는 제주도로 보는 견해(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1962, 154~155쪽)와 康津으로 보는 견해(李丙熹, 〈近肖古王拓境考〉, 앞의 책 512쪽)가 있어 왔다. 新彌國을 忱彌多禮와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전라도 해안지역, 특히 영산강유역의 웅관묘 조영집단을 주목하는 견해(盧重國, 앞의 책, 118쪽)와, 해남으로 좁혀 보는 견해(李道學, 앞의 책, 192~193쪽)가 있다.

70) 이 때의 東夷校尉는 平州刺史가 겸임하였으며(權五重,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124쪽의 주 74), 소재지는 襄平(遼寧省 遼陽市)이었다.

71)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책계왕 원년.

전사하면서, 이어 즉위한 분서왕은 304년 樂浪西縣을 습격하다가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였던 것이다.⁷²⁾

2군과 백제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이전부터 쇠락해가던 낙랑·대방이 서진 중앙의 혼란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를 감지한 백제가 강공책을 감행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책계·분서 두 왕이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지만⁷³⁾ 이 항쟁은 고이왕 이후 진행된 체제정비를 기반으로 백제의 국력이 급격히 신장되어 2군과 정면으로 승부를 벌일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정복전쟁과 마한통합

4세기 초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되는 것을 고비로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낙랑·대방의 옛땅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분쟁이 시작되었고 400년 이상을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동방세계를 조정하던 군현세력이 물러간 힘의 공백상태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제국·왜 사이에는 복잡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4세기 중반, 백제는 왕위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외세로 말미암아 책계·분서 두 왕이 갑작스럽게 피살된 이후, “구수왕의 둘째 아들로써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으나 개인적인 출중함에 의해 汾西王의 어린 맏아들(契)을 대신하여 臣民의 추대에 의해 즉위”하였다는⁷⁴⁾ 비류왕의 등장은 개루—고이—책계—분서로 이어지는 계통⁷⁵⁾과 초고—구수—비류로 이어지는 계통⁷⁶⁾의 알력을 반영하고 있다. 비류왕이 죽은 뒤에 개루—고이계의 계왕이

72)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책계왕 13년 및 분서왕 7년.

73) 고이계의 마지막 왕인 契가 죽은 후 고이계는 절멸된 듯 이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백제계 씨족 중에는 《삼국사기》에 이름을 전하는 백제왕들의 후예를 칭하는 씨족들이 다수 눈에 띄이지만 고이·책계·분서·계의 후손을 칭하는 씨족들은 전혀 없다.

74)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비류왕 즉위년.

75)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조에서는 고이왕이 개루왕의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고이왕의 생존년수는 12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라기보다는 다분히 의제적인 관계일 것으로 여겨진다(金哲堉, 〈百濟建國考〉, 《百濟研究》특집호, 1982, 13~14쪽).

76) 비류왕 역시 구수왕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110세 이상 생존한 셈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李道學, 〈百

다시 왕위에 올랐으나 2년만에 사망하고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왕이 즉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왕위계승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⁷⁷⁾ 계왕은 초고계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일시 근초고왕과 양립하다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의 이름에서 「近」자는 혈통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며⁷⁸⁾ 초고계가 왕권을 장악하였음을 안팎으로 천명하는 것이었다.

왕위가 초고계로 고정된 근초고왕대에는 활발한 대외정복이 이루어졌다.⁷⁹⁾ 북으로는 대방의 옛땅을 두고 고구려와 항쟁을 벌이는 한편, 남으로는 마한 잔여세력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고, 동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가야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게 되었다.

《일본서기》신공황후 섭정 49년(369)⁸⁰⁾조에는 백제·신라·가야·왜가 관련 된 중대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신공황후가 파견한 倭兵이 卓淳에 모두 모여 신라를 격파하니 이로 인해 比自怱(昌寧)·南加羅(金海)·喙國(昌寧 靈山?)⁸¹⁾·安羅(咸安)·多羅(陝川)·卓淳(昌原?)⁸²⁾·加羅(高靈) 등의 7국을 평정하게 되었다. 거듭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古奚津(강진)에 이르고 南蠻 枕彌多禮를 정벌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肖古(근초고왕)와 왕자인 貴須(근구수)가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니 比利·辟中·布彌支·半古 四邑⁸³⁾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荒田

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제검토》,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135쪽).

77) 근초고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 당시 유력한 귀족가문이었던 眞氏 세력과의 연합을 들 수 있다. 진씨와의 연결은 비류왕대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형태는 왕비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盧重國, 앞의 책, 126~129쪽).

78) 金哲堧, 앞의 글, 14쪽.

79) 이 정복전쟁의 배경에는 국력의 성장이란 측면과 함께 초고계와 고이계간의 왕위계승과정에서 야기된 내분을 외부적으로 발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梁起錫, 《百濟 專制王權成立過程 研究》,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66쪽).

80) 《日本書紀》의 연대로는 249년이지만 神功紀의 연대는 120년 내려서 다루어야 한다.

81) 이를 경북 경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82) 이를 대구, 또는 칠원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83) 이는 《日本書紀》에서의 끊어 읽기와는 달리 ‘布彌·支半·古四의 邑’으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全榮來, 〈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關한 新研究〉, 한국문

別・木羅斤資 등은 意流村에서 회합한 후 千熊長彦만이 백제왕과 함께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였다. 다시 古沙山에 올라 백제왕은 이 후 변함없이 西蕃으로서 끊임없이 조공할 것을 맹세했다.

한때 임나일본부설을 날조하는 데에 이용된 근거자료 중의 하나였던 이 기사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정벌의 주체를 왜가 아니라 백제로 치환할 경우 역사적인 진실을 일부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⁸⁴⁾ 대체적인 줄거리는 백제와 왜병이 연합한 전쟁의 결과 백제에 대한 比自炁 등 7국의 종속, 忱彌多禮의 정벌, 比利 등의 항복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가야정벌」은 군사적인 무력침공이라기보다는 백제를 정점으로 比自炁 등 7국이 동맹을 맺거나 통교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⁸⁵⁾ 그것은 뒷날 성왕이 “옛날 나의 선조 速古王(近肖古王), 貴首王(近仇首王)의 치세에 安羅・加羅・卓淳旱岐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통하게 되어 우호관계를 두터이 맺게 되었다. 그래서 子弟로 삼아 항상 도맡게 잘 지내기를 바랐었다”⁸⁶⁾고 한 회고담을 통하여 짐작된다. 실제로 4세기 중반부터 백제가 가야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가야유적에서 종종 발견되는 백제계의 유물들은 대개가 5세기 후반, 즉 웅진기 이후에 해당된다.⁸⁷⁾

백제가 가야지역에 진출한 이유는 왜와의 교역로를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⁸⁸⁾ 윤색이 심하기는 하지만 《일본서기》의 신공섭정 46년・47년조를 통해 볼 때, 아래의 사실들이 추출된다.

근초고왕 19년(364) 久氐 등 백제 사신 3인이 왜와의 통교를 위해 파견되었다. 이들은 탁순까지 나아간 후 해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동왕

화재보호협회전라북도지부・부안군, 1976). 그럴 경우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條에 보이는 馬韓의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에 대응된다. 比利는 역시 馬韓 小國 중의 하나인 卑離國일 가능성이 있다.

84) 千寬宇, 〈復元加耶史(中)〉(《文學과 知性》, 8-3, 1977), 916~919쪽.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앞의 책), 511~514쪽.

85)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333쪽.

86) 《日本書紀》권 18, 欽明天皇 2년 4월.

87) 崔鍾圭, 〈濟羅耶의 文物交流〉(《百濟研究》 23, 1992).

88) 이외에도 고구려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金鉉球, 〈4세기 가야와 백제・야마토 왜의 관계〉, 《韓國古代史論叢》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4, 116쪽).

21년 왜에서 파견된 斯摩宿禰는 이 사실을 알고 종자인 爾波移와 탁순사람 1인을 백제에 파견하였다. 초고왕(근초고왕)은 기뻐하며 이들을 후대하였고 五色綵絹・角弓箭・鐵鎚 등을 이파이(니하야)에게 주고 보물창고를 열어 여러가지 진기한 물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왜측의 교역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다. 이파이가 돌아와 사마속네(시마노스쿠네)에게 보고하고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근초고왕 22년 백제는 신라와 동시에 왜에 교역단을 파견하였다. 이에 왜의 조정은 선왕대부터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다고 감격하였다. 백제와 신라, 양국은 왜와의 독점적인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백제측의 우세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근초고왕 24년(369)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왜와의 교역을 독점하여 동아시아 교역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려는 백제의 의도와 낙랑・대방의 퇴축 이후 한동안 선진문물의 공급에 곤란을 겪던 왜측의 욕구가 부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⁹⁾ 가야에 대한 작전은 백제와 왜 사이의 원활한 교통로의 확보, 신라에 의한 교역 방해의 방지 등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백제는 이듬해 多沙城(河東)을 확보하여⁹⁰⁾ 왜와의 교역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忱彌多禮와 比利 등에 대한 정벌은 교역로의 확보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라는 측면이 결부되었을 것이다. 침미다례는 마한 잔여세력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었다. 그것은 침미다례가 3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新彌國과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초고왕 24년의 전역에서 남만이라는 수식어가 별도로 붙어 있다는 점, 침미다례를 무찌르자 비리 등의 소국들이 자연히 항복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유추할 수 있다. 침미다례는 강진이나 해남 지역으로 비정되며 비리 등도 대개 오늘날의 전남 해안지방에 비정된다. 반면에 백제국의 영내로 표현된 벽지산은 金堤 부근,⁹¹⁾ 고사산은 古阜 부근⁹²⁾으로 비정되기 때문에 근초고왕 24년 이전 백제의 영토는 이미 노령산맥 이

89) 李賢惠, 앞의 글(1988), 174쪽.

90) 《日本書紀》권 9, 神功皇后 攝政 50년 5월.

91) 李丙燾, 앞의 책, 513쪽.

92) 古沙山을 沃溝 臨陂로 보는 견해(李丙燾, 위의 글)도 있으나 古沙夫里, 즉 古阜 부근으로 보는 것(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61, 51~52쪽)이 합리적이다.

북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통합은 내부의 지배세력들을 온존시키면서 이들을 통한 공납적 지배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다. 이는 이 지역에서 5세기에 접어들어 대형의 옹관묘가 조영되고, 그 중에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큰칼 등의 화려한 물건들을 부장한 지배세력이 의연히 존재했던 사실⁹³⁾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근초고왕대의 마한통합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일원적인 지방제도의 정비와 지방관의 파견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 때부터 백제는 전체 마한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 “晋代 이후 諸國을 병탄하여 마한의 옛땅에 자리잡았다”⁹⁴⁾라는 표현은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다.

낙랑·대방의 축출 이후 고구려와의 관계는 4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는 자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된 양국이 대방의 옛땅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팽팽하던 긴장관계는 마침내 근초고왕 24년(고구려 고국원왕 39) 폭발하였다.

고구려의 선공으로 시작된 전투는 초기에는 帶方故地の 남쪽에 해당하는 예성강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⁹⁵⁾ 전세는 차츰 백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근초고왕 26년에는 왕과 태자인 근구수가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고구려지역에 깊숙이 진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이 와중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에 이르렀다.⁹⁶⁾

이 때 백제는 黃州에서 新溪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4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해당하는 백제토기류가 황주지방에서 출토된 점,⁹⁷⁾ 근

93) 有光教一, 〈羅州潘南面新村里第9號墳發掘調查記錄〉(《朝鮮學報》94, 1980).

穴澤味光・馬目順一, 〈羅州潘南面古墳群〉(《古代學研究》70, 古代學研究會, 1973).
國立光州博物館・全羅南道羅州郡, 《羅州潘南古墳群》—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제13책—, (1988).

94) 《通典》邊防門, 東夷傳 百濟.

95) 전쟁 초기에 백제군이 고구려군의 침공에 맞서 싸웠던 雉壤과 半乞壤은 모두 黃海道 白川으로, 浪河는 禮成江으로 비정되고 있다(李丙燾, 앞의 책, 509쪽). 半乞壤은 白川の 半月岡(《新增東國輿地勝覽》권 43, 白川郡, 古蹟)일 가능성이 크다.

96)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24·26년, 근구수왕 즉위년 및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39·41년.

97) 崔鍾澤, 〈黃州出土百濟土器類〉(《韓國上古史學報》4, 1990).

초고왕 30년(375) 백제의 북변 水谷城(황해도 신계)을 고구려가 쳐서 함락시키는 상황⁹⁸⁾에서 유추된다. 황해도 谷山 근처로 비정되고 있는 谷那鐵山⁹⁹⁾은 아무럼 개발되었을 것이다.

대고구려전의 성공적인 수행, 왜와의 교역로 확보와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 일단락 된 근초고왕 27년(372) 왕은 동진에 사신을 보냈고 ‘鎮東將軍 領樂浪太守’에 제수되었다.¹⁰⁰⁾ 이제는 伯濟國王으로서 북부 마한연맹의 영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馬韓主」가 아니라 전체 마한을 아우른 「百濟王」을 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 조정의 공식적 역사서인 《書記》가 편찬되었다. 그 목적은 伯濟國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들어온 다양한 세력들의 활동과 경험들을 백제 전체의 역사로 융해시키고, 왕실 내부적으로는 초고계를 근간으로 하는 일원적 계보를 마련하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당대 근초고왕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에 할애되었을 것이다.

당시 백제의 국력과 왕권의 성장은 서울시 석촌동 3호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무덤은 시기적으로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해당되며, 한 변의 길이가 50m에 달하는 초대형의 적석묘로서 여기에 묻힌 피장자는 근초고왕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¹⁾

〈權五榮〉

98)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30년.

99) 《日本書紀》 권 9, 神功皇后 攝政 52년조에는 근초고왕이 七枝刀와 七子鏡 등을倭에 보내면서 한 말 가운데 “나라의 서쪽에 강이 있는데 谷那鐵山에서 발원한다. 그 거리가 멀어 7일을 가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신공황후 52년은 근초고왕 27년(372)에 해당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때에 백제는 水谷城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谷那鐵山은 현재의 谷山일원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나라 서쪽의 강”은 예성강이 된다.

100) 《晉書》 권 9, 簡文帝 咸安 2년 정월·6월.

101) 金元龍·李熙濬, 〈서울 石村洞 3號墳의 年代〉(《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31~32쪽.